

# 열등감·인정욕구·허영심 통해 인간 본연의 마음을 찾다



아들러의 인간이해 알프레드 아들러 지음

인간에게는 왜 열등감이 있을까?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왜 권력욕이 작동할까? 형제는 왜 서열에 따라 성격이 다른 것일까?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는 인류가 풀기 차게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과제다. 그러나 인류는 이 문제를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프로이트, 융과 함께 세계 심리학의 3대 거장 중 한 사람이자 개인심리학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 본연의 마음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이번에 심리학과 독문학을 전공한 홍혜경 씨가 번역한 아들러의 대표작 '아들러의 인간이해'는 아들러가 시인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례들과 설명이 담겨 있다. 단순히 학문적 이론을 넘어 개인심리학이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사람들과의 교류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점을 둔다.

아들러는 '열등감·인정욕구·허영심'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낸다. 가장 먼저 열등감은 유년 시절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인간은 다른 동물

에 비해 오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데 이때 부모나 가족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연약한 아이는 무력감을 느끼며 열등감을 갖게 된다.

애정욕구와 인정욕구는 부모를 두고 벌이는 형제자매 간 경쟁, 학교에서 벌이는 점수 경쟁 등 사소한 것부터 점차 크고 작은 권력 관계에까지 확대된다. 가장 평등해야 할 친구나 연인, 부부 관계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벌어진다.

권력욕이 심해지면 인간은 심한 경쟁으로 마음의 병을 얻고, 갈등과 고통에 매몰되기 쉽다. 한편으로 우월 욕구가 너무 강해지면 허영심이나 정복욕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 경우 삶은 온통 승리에 대한 욕구로 가득 차고, 자신은 늘 능력 있고 우아한 존재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다. 일상이나 주변사람과의 연관성을 잃어버리면 공동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아들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다. 올바른 공동체 의식의 함양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아이들의 열등감을 이해하면 아이를 교육하는 행동 규칙을 알 수 있다. 아이의 삶을 힘들게 만들지 말고, 아이가 삶의 비참한 면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보호하고, 아이에게 가능한 한 삶의 밝은 면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출판사>·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지정학'은 국제정세를 읽는 열쇠다

## 지정학에 관한 모든 것

파스칼 보니파스 지음



한반도는 예로부터 지정학적 요충지였다. 대륙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현재에도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4대 강국이 한반도의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지정학적 위치는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다. 지금의 사드 배치 논란은 지정학적 위치와 긴밀하게 연동돼 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터키도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와 유사한 점이 있다. 지중해와 흑해 사이에 위치한 탓에 중동과 유럽의 교두보였다. 여러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역사적으로 유럽을 공격하기도 했고, 반대로 유럽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기도 했다.

한반도와 터키의 공통점은 '지정학적 위치'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국제 뉴스를 접할 때 단순히 '팩트(사실)'만을 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분단, 중동 내전, 다른 국가와의 외교 관계 등 오늘날 국제 문제는 지정학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얼마 전 영국이 선거를 통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브렉시트도 따지고 보면 '지정학적' 측면과 연관이 있다. 사전적 의미의 '지정학'은 "지리적 환

경과 정치 현상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1916년 스웨덴의 정치학자 켈렌이 제창했으며, 나치스의 정책과 들어맞아 영토 확장의 전략론으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파리 8대학 유럽학연구소 파스칼 보니파스는 세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선 굵직한 역사적 이정표를 짚어봐야 한다고 한다. 그가 이번에 펴낸 '지정학에 관한 모든 것'은 세계 정세를 제대로 읽기 위한 새로운 열쇠를 제공한다. 번역을 한 이는 광주일보 기자 출신으로, 파리 8대학 불문과를 졸업한 정성필 씨다. 기자 출신 특유의 현장감과 유려한 번역이 딱딱한 주제임에도 잘 녹아들었다는 느낌이다. (책은 프랑스문화진흥국 출판 번역 지원 프로그램으로 출간됐다)

저자는 20세기와 21세기에 일어난 다양한 국제 사건을 토대로 지정학을 크게 냉전과 대탕트(화해분위), 다극화 세계의 출현으로 나눈다. 오늘날의 국제질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지정학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유럽은 15세기 말 대항해시대 이후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해왔다. 그러나 두 번의 세계대전은 유럽 중심의 국제관계를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바꿔놓았다. 국력이 약해진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미국과 소련에 의지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서로 다른 정치체제인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견제하며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했다. 초강대국인 이들은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전쟁만큼은 피했다. 베를린 장벽과 핵무기 등장은 냉전의 긴 시간을 관통하며 자연스럽게 긴장완화인 '데탕트'로 이어진다. 이 시기 유럽은 적어도 '전쟁의 대륙'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긴 시간 평화를 유지한다.



저자인 파스칼 보니파스 파리 8대학 교수는 국제정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이라는 렌즈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레디셋고 제공>

반면 소련은 공산주의 체제 보존을 위해 동서분열 구도에서 탈피하는 전략을 쓴다. 개혁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전술을 구사한다. 그러나 소련은 국제관계 구조를 어느 정도 바꿨지만 봉괴라는 최악의 국면을 피할 수 없었다.

워싱턴과 모스크바는 상대가 서로를 속여 한다고 예단했다. 당시 고르바초프는 미국, 서방세계와 화합정책을 펼치려고 했지만 저편에서는 자국의 힘이 약화될 때 따른 제스처라고 생각했다. 오늘날 대립 구도는 그 개념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남아 있다. 달라진 게 있다

면 서방국가들의 독점이 깨지고 남반구 국가들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다원주의 체제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는 서방 강대국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들의 독점 구도가 더 이상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통하지 않게 됐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런 다원주의로 인류는 전후 네 번째 시기를 맞이할 것인가? 저자의 질문은 당장의 사드 배치 논란으로 국면이 분열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레디셋고·2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이 세상 모든 '보통 씨'를 위한 수학 여행기



길 위의 수학자 윌리엄 R.리버 지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수학만큼 좋은 과목도 없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수학에 관심이 있지만 어려운 나머지 포기하곤 한다. 학교에서 흔히 수학 과목을 포기한 사람을 '수포자'라고 한다.

'수포자' 대신에 '일반인', 즉 '보통 씨(보통사람)'라고 부르는 이가 있다. 아인슈타인이 감탄한 수학책으로 알려진 '길 위의 수학자'의 저자 윌리엄 R. 리버가 그렇다. 아일랜드대 수학과 과장을 역임했던 윌리엄 R. 리버가 지금까지로부터 75년 전

에 펴냈던 '길 위의 수학자'는 현재까지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꾸준히 읽히는 수학 분야의 고전 필독서다. 저자 사후 60여 년 만에 재출간된 책은 수학적 사고의 놀라움과 삼각함수, 미적분 등 현대 수학의 주제들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무엇보다 책은 기존의 수학책들과는 서술방식이 다르다. 한편의 자유시를 읽듯 행글머리를 하며 수학 이야기를 전개해나간다. 그렇잖아도 어려운 수학이라는 주제를 낱산문으로 기술하는 것보다 운문처럼 행글머리를 해주면 쉽게 이해하리라는 의도 때문이다. 또 다른 책의 묘미는 다수의 삽화가 첨부돼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존 수학책들의 수와 공식에 지친 이들이라면 책속의 그림부터 감상하는 것이 수학과 친해지는 방법이 될 것 같다. <공리·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우리 고전문학 '사랑' 키워드로 재해석



고전문학에서- 신동훈 외 지음

대체로 고전소설의 주제는 '권선징악' '삼강오륜' 등을 벗어나지 못했다. 도덕 윤리에 집중된 나머지 인간의 자유연애, 사랑과 같은 주제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고전에 인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적지 않다. '춘향전', '구운몽', '숙향

전' 등이 그러한 작품들이다. 우리나라의 고전 가운데 '사랑'을 키워드로 재해석한 앤솔러지가 나왔다. 신동훈 건국대 국문과 교수와 '서사외치료 연구모임'이 공동으로 펴낸 '고전문학에서 찾은 신로맨스의 탄생'은 다양한 사랑의 기술에 초점을 맞춘다.

책속에서 말하는 '기술'은 흔히 가볍게 이야기되는 '테크닉'과는 변별된다. 원리 또는 철학에 기댄다면 진정성과 신념, 언행일치의 진실함으로도 해석된다. 고전 속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인연을 운명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위즈덤하우스·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서른여섯 젊은 의사가 남긴 마지막 2년의 기록



숨결이 바람 될 때 폴 칼라니티 지음

서른여섯의 나이에 정상에 오른 젊은 의사가 폴 칼라니티. 열다섯 달만 더 버티면 혹독한 레지던트 생활과도 이별이었다. 하지만 가족에게도 그 무렵 암 선고를 받았고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숨결이 바람 될 때'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치명적인 뇌 손상 환자들을 치료하

며 죽을과 싸우다가 자신도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죽음을 마주하게 된 폴 칼라니티의 마지막 2년의 기록을 담은 책이다. 그는 언제 죽을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통감하고 수술실로 복귀해 엄청난 업무량을 소화했다.

아내 루시는 인공수정으로 임신에 성공하고 결국 딸 케티가 태어난 지 8개월 후 그는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2015년 3월 폴이 사망한 후, 그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책의 에필로그는 아내 루시가 집필했다. <흐름출판·1만4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램**을 지금 만나보십시오

**광신프로그램**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문의 062-511-1141

시행 1주에이저런 시공 (주)광신종합건설

### 광주·전남 기능장1호

#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0-3600-9955

NAVER 주소대신프리모